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들어쥐고

# 남바다우에 떠있는 고압-담춘철길



고압, 담춘, 송천반도, 석전만...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던 지역들이다. 허나 지금은 누구나 안다. 2018년 5월 30일, 현지에서는 동해지구 석전만의 남바다를 횡단하는 고압-담춘철길 개통식이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공화국의 첫 해상철길인 고압-담춘철길. 이는 조선의 정신, 조선의 기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기적의 창조물이다. 푸른 잔디들과 이채로운 장식관들로 단장된 호안은 도시의 유보도를 방불케 하고 산뜻한 가로등들이 줄지어 선 해상철길다리는 한쪽의 그림자다.

담춘지역도 고압과 연결되어 새 풍경을 펼쳐냈다. 직선으로 가던 불과 몇리밖에 안되는 길을 수십리나 에돌아다니던것이 이제는 옛말로 되었다고, 눈뜨고도 꿈을 꾸는것 같다고 이 고장 사람들은 격정을 터치고있다.

새 차갈도 생기고 산기슭에는 철도종업원들의 아담한 마을도 생겨났다. 철길의 한 끝에 이르면 담춘철길소재 및 운전지휘원실이 덩실하게 솟아 또 눈부리를 끈다. 세계에는 나름대로의 유명한 해상철길들이 있다.

고압-담춘철길은 무엇으로 하여 그리도 자랑스러운 것인가.



힘을 들었어도 많은 경험을 쌓았을것이라고,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보람이 있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젖게 한다.

고압-담춘철길은 시작부터 끝까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안아올린 자력갱생의 창조물인 것이다. 공화국에서의 첫 해상철길 건설이라는 초항길을 헤쳐야 했던 건설자들은 사나운 남바다와 싸웠다. 허나 그들은 남을 쳐다보지 않았다.

오직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로! 새 기술, 새 기적, 새 기록을 창조하자! 이것이 사나운 풍랑도 꺾을 수 없었던 고압-담춘철길 건설자들의 신념이었고 의지였다.

이 건설에서는 공화국건설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새 공법, 새 기술들이 참으로 많이 창조되었다. 해상철길다리로 공화국에

서 처음으로 가물막이를 하지 않고 해상기초를 박아 건설한것이고 큰 은을 낸 풍크리트암송기술도 철도구조물시공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이런 현대적인 공법들을 남들처럼 많은 자금을 요구하는 대형설비로가 아니라 자체의 설비와 장비로 해냈다는 사실이다.

만일 어렵다고 남을 쳐다보았다면, 힘들다고 남의 기술을 그대로 답습하였다면 이 새길은 더 오래 걸렸을 것이다. 자력갱생의 계도는 과학기술의 힘으로만 열여갈수 있다!

이것이 해상철길건설자들이 새길 귀중한 철리였다. 그들은 어려울수록 과학의 보검을 더 굳게 틀어쥐고 이런 이겨낼수룩 과학기술증시의 열정을 더 세차게 일으켰다.

이런 고압-담춘철길은 원공정에 의한 고압-담춘철길을 현지에

서 료해하시면서 불수록 호 못하고 자랑스럽다고, 조국의 동해기슭에 또 하나의 귀중한 창조물이 일떠섰다고 거듭 만찬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에게 불가능이란 없으며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해내고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간다고 말씀하시었다.

석전만의 남바다를 가로지른 해상철길다리는 단숨에 공화국의 첫 해상철길다리라는데만 의의가 있지 않다. 고압-담춘철길은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어 산악같이 일떠설 때,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살며 투쟁할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산 화적으로 증명해준 자력갱생의 대명사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 전민과학기술인재화와 원격교육

얼마전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격교육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원격교육은 한마디로 말하여 교원과 학생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말한다.

21세기에 들어선 원격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필요한 인재를 많이 키워내며 사람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하는 우월하고 실리있는 일생교육수단으로 인정되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다.

정보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원격교육은 여러 단계로 발전하여

자료를 의하면 1800년대 전반기 어느 한 나라의 대학에서 교과서, 학습지도서, 학습과제 등을 우편물로 먼 지역에 있는 학생에게 보내어 원격교육의 서막을 열어놓았다고 한다.

이러한 원격교육은 1세대로부터 라디오, 녹음기를 리용하여 강의내용을 다른 지역의 학생에게 보내는 2세대와 유선TV와 컴퓨터를 리용하여 교원과 학생이 호상 접촉하는 3세대를 거쳐 인터넷을 통하여 세

계적인 범위에서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에서 필요한 모든것을 다 배울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4세대 원격교육으로 발전하였다.

공화국에서 원격교육의 역사는 비록 길지 않지만 그 기간 많은 성과가 이룩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대학에서 진행되는 원격교육을 보시고 한 대학의 울타리안에 머물러있던 원격교육을 전국적범위에서 진행하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었다.

하여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수공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첫 원격교육이 시작되었고 그 대렬이 나날이 늘어나 전국각지에 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근로자들이 학생이 되어 고등교육을 받는 새 모습이 펼쳐지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건축대학, 장철기평양공업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을 비롯한 중요대학들에 원격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지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현지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생이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원격교육이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 있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원격교육을 받는것을 전민학습체제로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었다.

그 나날 현대원격강의의 중요지표인 컴퓨터지원교수체계와 관리체계, 평가체계 등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어 원격교육의 질은 날을 따라 개선되었다. 이등통신망에 의한 원격교육체계가 확립되어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손전화기와 판형컴퓨터를 리용하여 어디서나 강의를 받을수 있어 원격교육을 받고싶어하는 지방생태력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이와 함께 다기능화된 현대과학기술보급기, 정보교류의 거점으로 과학기술전당이 훌륭히 일떠서고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보급망이 형성됨으로써 중앙에서부터 향단에 이르기까지 물이 흐르듯 정연한 과학기술자보급체계가 서게 되었다.

또한 전국각지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는 원격강의실, 과학기술보급실들이 훌륭히 꾸러지고 국가망을 통해 학습할수 있는 조건이 빈번히 갖추어지게 되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원격교육단위만 해도 지금은 전국의 수천여개의 단위들에서 수만명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진행하고있다.

특히 이번에 원격교육법이 채택됨으로써 나라의 교육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는 법적토대가 마련되었고 모든 근로자들을 현대과학기술자식을 소유한 지식형근로자로 준비시키는 데서 큰 전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금 원격교육체계가 망라된 많은 사람들이 최신과학기술로 자기들의 실력을 다지고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생산활동에 이바지하는 창고안명성, 혁신자로 자랑하고있는 등 원격교육의 우월성이 날이 갈수록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이렇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과학기술인재로 준비할수 있는 원격교육은 공화국의 교육발전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철

## 누구나 즐겨 신는 《매봉산》 신발



동해의 항구도시 원산에는 여러 전시회마다에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찾는 《매봉산》 신발을 생산하고 있는 원산구두공장이 있다. 사람들이 《매봉산》 신발에 애착을 갖는것은 그 종류가 다양하면서도 디자인이 가벼우면서도 댄스가 있고 편안하기 때문이다.

지방의 코지 않은 구두공장에서 인민들이 선호하는 신발을 만들기까지에는 길은 사연이 깃들어있다. 주체104(2015)년 1월 개건된 원산구두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원료와 자체를 가지고 두 우리 인민들의 기호와 수요에 맞게 구두를 생산할수 있다는 신심이 생긴다고, 이제는 신발공업의 튼튼한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정상화하면서 량보다 질을 더 중시하고 하나를 만들어도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해 11월 또다시 이곳에 오신 그이께서는 공장일군들에게 구두를 한결케 만들어도 인민들에게 질 좋은 구두를 신기겠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인민들이 신고 다니는 구두를 눈여겨보기도 하고 자식에게 구두를 신기는 부모의 심정으로 구두가 어떤가 하는것을 물어보기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이렇듯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생활수준에 맞게 질 좋은 신발을 만들어주기 위해 크나큰 심혈을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에 의해 《매봉산》 신발은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명상품으로 될수 있었다.

본사기자

은 사연이 깃들어있다. 주체104(2015)년 1월 개건된 원산구두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원료와 자체를 가지고 두 우리 인민들의 기호와 수요에 맞게 구두를 생산할수 있다는 신심이 생긴다고, 이제는 신발공업의 튼튼한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정상화하면서 량보다 질을 더 중시하고 하나를 만들어도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해 11월 또다시 이곳에 오신 그이께서는 공장일군들에게 구두를 한결케 만들어도 인민들에게 질 좋은 구두를 신기겠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인민들이 신고 다니는 구두를 눈여겨보기도 하고 자식에게 구두를 신기는 부모의 심정으로 구두가 어떤가 하는것을 물어보기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이렇듯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생활수준에 맞게 질 좋은 신발을 만들어주기 위해 크나큰 심혈을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에 의해 《매봉산》 신발은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명상품으로 될수 있었다.

본사기자

## 조국이 드리는 너의학자의 노래 (1)

- 평양의학대학 립상연구소 리영은실장 -

얼굴 하였다. ... 이 나날에 알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바다 건너 이역땅에서 조국의 품에 안기고 있고 더우기는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보고 크나큰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소녀시절의 체조명수였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하였다. 그의 눈앞에는 주체52(1963)년 9월 평양학생소년궁전개관식에서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예술체조공연을 하던 못 잊을 추억이 어제일처럼 삼삼히 떠올랐다. 어린 동무인데 참 잘한다고 제일먼저 박수도 쳐

주시고 지적체를 겸비한 조선의 훌륭한 역군이 되라고 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을 그 한생토록 심장속에 간직하고 살아왔다. 공부도 잘하고 체육도 막히는데가 없이 잘하는 그의 꿈은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훌륭한 의학자가 되는 것이었다. 하기에 과학탐구의 어려운 길을 택하였고 시달산관련효소저해력이 소고기에 비해 1.38배 더 높은 다시마에 대한 연구를 위해 남바다에도 서슴없이 뛰어 들었다.



바다날씨가 심상치 않게 번져간다는것을 의식하지 못한채 뛰어들었다가 풍랑과 맞부딪혔다. 《연구사선생, 빨리 나오시오.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안타깝게 웨치는 소리에 그는 정신이 번쩍 들어 헤엄쳐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덜컥드는 파도에 휘둘리우며 조약돌처럼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그 순간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해방전 일본 홋카이도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여 뜨거운해협을 헤엄쳐 건넜다는 이야기가 삶과 죽음이 셋돌아치는 순간에 떠오른것은 무엇 때문이었던가. 오랜 총련일군이었던 아버지는 세찬 파도를 헤갈 때 허벅다리엔 펜인 상처자리를 보여주며 아버지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의 귀환함을 절절하게 이야기해주었다. (이렇게 쓰러질수 없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고 강인함과 성격을 꼭 닮았다고 칭찬받던 내가 이쯤만 파도에 정신을 잃다니.) 그는 온몸의 힘을 모아 물 위로 솟구쳤다. 가까이에서 발동선이 통라기리며 전조등으로 그를 찾고있었다. ...

그후 그는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치료를 받았다. 혼수상태에서도 그는 바다를 속으로 자백하며 《바다진주》를 찾는 꿈을 꾸었다. 영양염류가 풍부한 다시마밭에 필경 내가 바라는 비취

색 《바다진주》가 있을것이다. 아, 《바다진주》! 그것은 다시마에서 추출한 흰색결정의 자그마한 알약들이 아닌가. ...

《실장실생, 그 몸으로 어딜 간다고 그러오. 절대 안돼. 승인할수 없소!》 리광성강장장이 펄쩍 놀라며 리영은실장을 만류했다. 리영은실장은 입원실의 벽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붓고 몸에 두드러기가 돋은데다가 걸기조차 힘들었다. 해안도시의 병원에서 이곳 모교 병원까지 긴장한 치료과정이 이어졌지만 건강은 회복되지 못하고있었다.

거침없이 흘러가는 시일이 피가 새듯 안라가갔다. 과연 이대로 주지않고마는 것인가. 어려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마구 뒤엉키며 두서없이 떠올랐다. 그는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주저앉았다. 그리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었다. 어머니가 노래소리라 들려왔다. 서정적인 노래 《나를 부르는 소리》의 선율이었다.

이렇게 흐려진 시일이 피가 새듯 안라가갔다. 과연 이대로 주지않고마는 것인가. 어려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마구 뒤엉키며 두서없이 떠올랐다. 그는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주저앉았다. 그리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었다. 어머니가 노래소리라 들려왔다. 서정적인 노래 《나를 부르는 소리》의 선율이었다.

이렇게 흐려진 시일이 피가 새듯 안라가갔다. 과연 이대로 주지않고마는 것인가. 어려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마구 뒤엉키며 두서없이 떠올랐다. 그는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주저앉았다. 그리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었다. 어머니가 노래소리라 들려왔다. 서정적인 노래 《나를 부르는 소리》의 선율이었다.

이렇게 흐려진 시일이 피가 새듯 안라가갔다. 과연 이대로 주지않고마는 것인가. 어려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마구 뒤엉키며 두서없이 떠올랐다. 그는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주저앉았다. 그리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었다. 어머니가 노래소리라 들려왔다. 서정적인 노래 《나를 부르는 소리》의 선율이었다.

